

## 2박3일간 잠 한숨 안자고 만들었다...MK미디어톤 개최

'톤'의 쾌감, 미디어를 만나다

이선희 기자    입력 : 2015.11.03 17:17:07    수정 : 2015.11.03 19:42:06



△MK미디어톤 참가자들이 제품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지난 1일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널찍한 행사장이 거대한 연구개발실로 변모했다. 청년 45명이 삼삼오오 모여 노트북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눈이 빨강게 충혈된 사람이 여럿 보였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다. 이들은 매일경제신문사와 앱센터, 본투글로벌이 공동주최한 MK미디어톤(미디어 해커톤) 참가자들이다. 정해진 시간 동안 기획한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경연 형태인 '해커톤'을 미디어에 접목한 시도다.

미디어 종사자, 개발자·기획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군 참가자 70여 명이 2박3일간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제품을 개발하는 데 나섰다.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여 제품 개발에 돌입했다. 이 중 9팀(45명)이 최종 본심에 올랐다.

'인터뷰어' 팀 이나리 씨(예비창업자·27)는 "2박3일간 한숨도 못 잤다. 졸음을 참는 게 힘들었다. 미디어톤의 핵심 경쟁력은 체력인 것 같다"며 웃었다.

2040 전용 뉴스 큐레이션 앱을 만든 '캐스트 포 미', 해외에 한국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앱 '더 인터뷰어'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 9개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각각 5분간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 질문을 받았다. 완성작 발표 후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MK미디어톤 대상은 '매거진 틀린 그림 찾기'가 차지했다. 언론사 영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을 하고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앱이다. 심사위원을 맡은 명승은 벤처

스퀘어 대표는 "신선함과 유용성에서 높이 평가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참신했다"고 했다. 2등 혁신상은 공시 뉴스를 로봇이 작성하는 '공시봇', 3등 참신상은 악플을 공유하는 '악플 플랫폼 정클리'가 수상했다.

'매거진 틀린 그림 찾기'를 개발한 이성준 씨(인하대·19)는 "공대생들만 가득한 해커톤에 참가하다가 다른 업계 종사자들과 협력한 경험이 색다르다"며 "미디어 산업에서 IT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캐스트 포 미' 팀 개발자 김미경 씨(30)는 "내공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돼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고 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미디어톤 참가 제품에 대한 투자와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선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